

초여름 ‘영화 비타민’으로 에너지 채워볼까

CULTURE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제14회 광주독립영화제’

26~29일 광주극장·독립영화관
개막작 ‘소영의 노력’ 등 총 26편
시스템 새단장 광주극장 기획전

여름의 초입 청명한 계절과 어울리는 ‘썸머 영화 페스티벌’이 광주 곳곳에서 펼쳐진다.

국내외 다양한 창작자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광주독립영화제’와 최근 영사시스템을 새단장한 광주극장의 첫번째 기획전 등이 마련된다.

먼저 ‘14회 광주독립영화제’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광주극장과 광주독립영화관(GIFT)에서 열린다. 올해 영화제는 ‘비타민 F (film)’을 슬로건으로 내세운다.

비타민처럼 관객의 감각과 마음을 깨우는 독립영화의 생기 넘치는 에너지를 공유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영화제에서는 총 26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프로그램은 지역성과 동시대성을 아우르는 ‘메이드인광주’, 새로운 시선을 제시하는 ‘광주 신진 감독전’, 한 명의 창작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송원재 감독전’과 더불어 해외 초청작과 지역교류전까지 다채롭게 구성됐다. 상영 후에는 감독 및 제작진과의 관객과의 대화(GV)도 예정돼 있다.

올해 개막작은 오재형 감독의 ‘소영의 노력’으로, 26일 광주극장에서 무료로 만날 수 있다. 장에를 가진 주인공 소영이 춤을 통해 자기 존재를 표현하고,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가는 이



작품은 무언가를 잘 해내고 싶은 청년의 몸짓을 조용하고도 강하게 그려낸다. 특히 화면을 설명해주는 음성해설과 대사, 음악, 소리정보 등을 알려주는 자막을 넣은 배리어프리버전으로 상영돼 누구나 영화를 즐길 수 있다.

폐막작으로는 박봉남 감독의 다큐멘터리 ‘1980 사복’이 상영된다. 1980년 강원도 사복에서 벌어진 광부들의 집단 항쟁과 공권력의 충돌을 다룬 이 작품은 사복사건에 대한 두 개의 시선 ‘폭동’과 ‘항쟁’을 조명하며 역사의 이면을 되짚는다.

‘메이드인광주’ 섹션에서는 광주지역 창작자들의 실험과 고민이 빛나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슬기다운’(김소영 감독)은 부당한 해고를 겪은 여성 주인공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며 겪는 내적 갈등을 통해 침묵과 저항 사이에서의 선택을 묻는

다. ‘소년 실격’(김소은 감독)은 트랜스젠더 육상 선수와 그를 바라보는 도래의 시선을 통해 젠더와 스포츠 차별과 연대의 문제를 짚고 강렬하게 담아낸다.

이외에 해외초청작 ‘RU’는 베트남 난민 소녀의 퀘백 정착기를 그린 작품으로, 퀘백 내셔널데이를 기념해 상영된다.

아울러 개관 90주년을 맞이한 광주극장이 새로운 영사시스템(4K 레이저영사기)을 갖추고 첫 기획전을 연다. 4K 디지털 복원된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 ‘4K CINEMA GWANGJU’가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영상자료원이 복원한 ‘마음의 고향’(1949 윤용규), ‘돈’(1958김소동) 2편은 시대적 배경과 기술, 예술적 완성도 등에서 각각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한국 영화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받으며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전영화다. 등록문화재 추진을 진행중인 광주극장에서 만날 수 있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2019년 ‘씨네21’ 장간 24주년과 그리고 한국영화 탄생 100주년을 맞아 역대 한국영화 중 30편에 자리한 이명세 감독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1999)도 4K로 상영된다. 28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영화 상영 후 이명세 감독이 참석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마련된다.

‘제14회 광주독립영화제’ 상영작은 광주독립영화관 GIFT와 디트릭스에서 예매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독립영화관과 광주극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장편 여행동화···모험심 선사 위승환 작가 ‘하늘호수’ 출간

위승환 작가가 신작 장편동화집 ‘하늘호수’를 도서출판 가꿈에서 출간했다. 첫 창작동화집 ‘개구쟁이 솔명이’를 통해 따뜻한



한 시선과 섬세한 상상력을 보여준 바 있는 작가는 이번 장편동화집에서 북인도의 라다크라는 낯선 땅의 문화와 자연,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감동적으로 그려 내는 한편, ‘장편 여행동화’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했다.

이번 장편동화는 해발 3000m가 넘는 인도 라다크 지방으로 여행을 떠난 한 어린이의 여정을 따라간다. 푸른 하늘과 투명한 호수, 거친 바위산과 흰 구름, 낮선 동물 마멋과 라마사원의 동철편 소리까지. 책 속에는 오직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풍경과 이야기가 생생히 담겨 있다.

작가는 단순한 여행기를 표방한 것이 아니라 갈등하던 두 어린이가 신비한 호수와 만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동화를 읽는 어린이들에게 진정한 우정과 성장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동시에 어린이 독자들에게 모험심과 상상력, 그리고 삶을 긍정하는 지혜를 전한다.

특히 이번 장편동화는 초등학교 중·고학년 어린이뿐 아니라, 선생님과 학부모 등 어른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는 작품으로 어른들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동심을 깨우기에 충분한 이야기라는 반응이다.

작가는 “이 책을 읽는 어린이들에게 낯선 문화를 이해하고, 친구와의 우정을 깊게 하며, 생각을 건강하게 해 주는 자양분이 됐으면 한다”면서 “어른들의 지나친 욕심이나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고집이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찬주 소설가는 추천의 글을 통해 “이번 ‘하늘호수’는 장편 여행동화의 모범이 될 만한 작품”이라며, “사랑과 애틋함, 화해라는 가치가 중심을 이루고 있기에 이 땅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정신의 씨앗을 심어 주고 있다”고 평했다.

위승환 작가는 전남 보성 출생으로 전남대 행정대학원을 졸업, 문예지 ‘인간과문학’ 제8회 동화 부문 신인상 당선으로 등단했으며, 동화집 ‘개구쟁이 솔명이’를 펴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광주예고 학생 전시 ACC서 만난다

亞문화전당, ‘잇-다’ 내달 13일까지 대나무 정원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한국화와 학생 작 50여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광주예술고등학교(교장 고웅선)와의 협력 전시 ‘잇-다’를 오는 7월 13일까지 ACC 대나무 정원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ACC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광주지역 소재의 유일한 예술계열 특수목적고인 광주예술고와 청소년 문화예술 협력의 서막을 연다.

전시가 열리는 ACC 문화정보원 내 ‘대나무 정원’은 본래 관람객의 휴식공간이지만 ACC는 지난 해부터 대나무 정원 일부를 전시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예술가 및 예비 문화예술인에게 개방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광주예술고 한국화와 1~3학년 학생 69명이 참여해 우수 실기 작품 50여점을 선보인다.

학생들의 작품은 전통 한국화의 표현기법과 방법, 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통과 현대를 ‘잇는’ 시대 연결의 의미를 담고 있다.

ACC는 전시 공간 속 대나무와 작품들이 어우러지며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시에서는 화화 위주로 알려진 한국화 장르의 경계를 넓혀 설치 기반의 입체작품 7점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이는 전통 기법에 기본을 두되 현대적 조형 언어로 풀어내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한국화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상욱 전당장은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지역 예비 예술인들의 도전을 응원한다”면서 “예비 예술인들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CC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모를 통해 호남지역 대학 문화예술 관련 학과 학생들의 졸업 전시를 지원하고 있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 판촉물 트로피 기념품 상패 휘장 ”

www. 광주판촉물 .com

NAVER 광주판촉물

나라장터 | S2B 학교장터 등록업체

062) 376-5431

서구 상무중앙로75, MK타워 1층

‘광주사람’은 ‘광주판촉물’ 이지..

QR Code